

일본의 독도 영토교육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성 이해

박 철 웅*

A Understanding of Approach to the Japanese Territory Education on Dokdo

Park, Chul Woong*

요약 : 한국과 일본은 국가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양국 내에서도 독도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함께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방자치정부는 실효적인 내용과 실천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성은 한일 양국의 상황적 맥락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구성 요소의 변화와 그 구성요소의 재배치에 의한다. 그에 따른 현안의 인식과 설정, 그에 대응전략에 따른 요소들의 다차원적 배치라는 점과 이에 따른 양국의 접근 전략은 가변적이고, 잠재적이면서 현재의 일시적 응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개정교과서가 아직 다 출판되지 않고 새학습지도요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좀 더 교육적 파급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의무성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주요어 : 독도, 영토교육, 다차원적 접근, 학습지도요령, 지자체

Abstract : We believe, 'Dokdo is clearly an inherent territory of Korea, in the light of geographical and historical facts', This paper aims to discuss Japanese multidimensional approach on the Issues of Dokdo(Takeshima) in the context of Territory Education. We considered the matter from various angles tha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national scale, as well as shimane prefecture government and municipality scale.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approach of territory education on Dokdo in Japan is variable and potential, and is temporary state of condensation, depends on Korea-Japan's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More studies of the new approach must be done for the new implications of Territory Education that embraces all meanings and events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of neighbouring condition of Dokdo in world context, keeping out emotional and nationalist sympathies. The result of consideration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erritory Education in japan was focused on geography, history, Civil, Social Studies, compared with focusing on History in Korea. Second, It is centered on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Dokdo, against which Japan has been consistently making strong protests" rather than simple historical approach. Thirdly, Their approaches seek to be succeeded the identity and importance of Territory Education to next generation rather than the present solving problem.

Key Words : Territory Education, multidimensional approach, shimane prefecture government, state of condensation

1. 양날의 시각차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살아가는 동안 일정한 서식처를 기반으로 영역을 설정하며 살아가듯 인간 역시 근본적으로 땅을 기반으로 한 일정한 영역 안에서 삶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인간 삶의 존재양식은 근본적으로 공간적 존재로 표출된다. 이 공간에서 역사는 새겨져 왔다. 그리고 그 공통의 역사적 공간은 점차 영토 또는 국토로 표상되었

다. 이 영토는 민족의 특수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타자를 구분 짓는 경계지움의 물적 기반이다. 영토는 애국심, 민족, 국가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에 대한 공간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영토는 국가(민족)의 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민족을 우리라는 감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서태열 등, 2007).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parkcw@chonnam.ac.kr)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의 여러 국가보다도 더욱 강하게 다른 것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민족적 내셔널리티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국민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고안해 낸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로, 그는 개개인이 “국가를 위해서는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갖고 있을 것, 즉 애국심이 바로 ‘국민’의 성립에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하면서 애국심이 ‘국민’과 ‘국가’의 독립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후쿠자와 유키치, 1984).

우리는 5,000년의 역사에서 한반도 중심 공간의 뿌리가 확고하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과 맞물려 확실한 영토성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진 못했지만, 그 한반도와 그 주변의 공간에 대한 뿌리의식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강렬한 생존적 본능으로 영토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런 시각차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가 간의 문제뿐 만 아니라, 양국 내에서도 독도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함께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복과 제도교육에서의 영토교육의 편입으로 한·일 양국은 숙명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체로 그간의 독도문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통해서 한국이 대응을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작년 말, 기자회견에서 일본 교육수장인 문부과학상은 이날 발표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2009.12.25). 이에 우리 정부의 반응은 성명보다 한 차원 낮은 외교통상부의 논평을 내고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하는 대응을 보였다. 2008년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엄중 대처’라는 강경조치 취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금년 3월에 들어 국내에서는 3.1절 독도광고가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고판을 장식하는 일도 있었고(그림 1), 최근에는 대통령이 2008년 일본에서 열린 G8정상회담 도중 후쿠다 수상과의 독도 대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어 논란이 있었다(미디어오늘, 2009.3.21).



출처: <http://cfile22.uf.tistory.com/image>

그림 1.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독도광고 화면

한편 일본 내에서는 홋카이도의 교원노조인 북교조(北教組)가 교사들에게 배포한 토의자료인 『홋교(北教)』(2008.1.28호)에서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의 해설서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명기한 것을 한국측 입장에서는 극히 부당하며 한국측의 입장이 바르다는데 대해 비판조의 기사가 산케이 신문에 실렸다(산케이, 2009.12.27). 당연 한국 측에서 이 북교조의 입장을 환영하며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한겨레, 2009.12.28).

한국측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의 독도가 독도를 둘러싼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독도의 구성요소에 따라 서로 다른 배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영토화를 상상하는 셈이다. 이러한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영토 문제를 함축하고 있고, 영토교육은 자국의 지리, 역사를 비롯한 사회과 교육의 하나의 이슈로, 사실로 자리하고 있다. 지리교육에선 실효적 지배의 영토권을 지도화하여 각인시키고, 스케일에 따른 향토교육과 세계교육의 축 상에서 시민 혹은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평화 교육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영토교육 실천적 과정에선 독도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으로 가르쳐진다. 사실이 명제는 한국인에게 교육이전의 문제이며, 거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 한국인에게 독도 자체의 영토교육은 질과 양을 벗어나 그 이상이며 민감한 민족적 사안의 문제화 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도 영토교육은 시·공간적

담론의 하나로 재영토화, 장소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토에 대한 내부적인 지리적 재발견임과 동시에 외부적 경계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 구성이며 대응이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교육은 애초부터 순수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소교육 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국가권력의 영토고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적 지식의 전략에 기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에서 펼쳐지는 정부차원, 교육과정의 차원 및 지방자치정부의 차원에서 영토교육 추진 양상과 실태를 통해서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살피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의 외무성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을 홈페이지의 내용과, 이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링크된 문부과학성의 신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실제 시마네현정부와 교육위원회, 다케시마 연구소 등 민간단체의 독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 양상과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교육의 질적, 양적 접근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독도문제와 영토교육의 다차원적 접근

1) 정부차원의 독도문제와 교육에 대한 접근

(1) 독도문제와 교육에 대한 외무성의 접근
외무성의 영토교육 접근은 독도를 정치문제화 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대외 홍보차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에는 대국민 교육차원과 함께 외교적 차원에서 국민행동 요령까지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접근은 대외와 대내의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다차원적 영토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해결을 위한 정치와 대국민의 영토의식의 유지와 공고히 하는데 있어 외무성은 대외적인 영토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림 2.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케시마 팜플렛(한글판과 중국어판)

것이다. 따라서 독도와 관련한 외무성 홈페이지는 일어, 영어, 한국어로 관련 국가의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자료를 국제화하고 개방화하는 접근방식을 취하며 제작되고 있다. 외무성의 홈페이지에서 주로 홍보교육의 중점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적 점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의 내용은 별책으로 「팜플렛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가 제공되는데, 이를 외무성은 일본어, 한국어, 영어, 아라비아, 중국어,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어로 주요 국제 통용 언어로 번역하여 주장이 공개를 통한 국제 이슈화에 초점을 두고 이 파일을 누구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도록 국제 이슈화 접근을 취하고 있음이 우리가 다른 전략이다(그림 2). 우리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독도교육 전략에 초점을 두고, 일본과 국제 언어로 우리의 주장의 정당성을 하는 소홀히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시키는 대외적 홍보 전략은 대한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의 주장과 당위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 자료를 제시하는 접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형태의 가시적 영토교육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무성이 대외적 홍보를 위해 제작한 팜플렛의 주요 주장 10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 한국이 자국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의문이 많다.
-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를 재확인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거부했다.
-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다.
-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역사적 실증과 주로 근대화 시점에서의 일본의 영토화의 과정을 법적근거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한국적 실효적 지배에 대한 항의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주장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국제 분쟁화함으로써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제동을 거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근거로 허구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대국민 홍보에 그치는 경우와 체계화된 홍보채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주요 각료들은 개별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돌출적 발언을 공식석상에서나 회담장소에서 자의적으로 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이계한·중·일 관계를 미묘하게 파장을 일으키는 소요와 이슈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점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한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장기적인 과제로 이슈화와 외교적 대응을 주기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외부성과 정부차원의 접

근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 창구로서 외부성 홈페이지는 독도 문제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교육의 일관되고 명확한 정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다국가의 외교에서 다양한 학술의 논리보다, 명료한 입장을 간결하게 주장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외부성의 홈페이지 접근방식도 매우 간결하여 접근하도록 단순화시킨 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외부성메인/region/asia-paci/의 첫 페이지로 국제에서 지역으로의 역지평확대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해의 명칭문제도 다케시마의 문제와 함께 이슈화시켜서 다루고 있다. 다케시마의 이슈에서는 일본어, 영어판, 한글판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인에 대한 자료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잠재적 홍보와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수상 관저를 시작해 외부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어필을 게재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주장도 제기(淺野好春, 2008)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한국인의 일본측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주시시켜 갈 수도 있다.

어쨌든 다케시마에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한국측이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 전략이다.

또한 하위메뉴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주장의 접근전략을 보면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다케시마의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울릉도예의 도해금지, 다케시마 시마네현 편입, 제2차대전 후의 다케시마,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기초과정에 있어서 다케시마취급, 국제사법재판소에 식 제조제안'을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일관되고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여 일본측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단에 지도를 통해서 독도의 위치와 거리를 통해서 일본과의 접근성을 제시하여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3). 홈페이지에는 또한 독도를 방문하는 일본인이 한국의 출입국 수속에 따라서 독도에 입도하는 것을 한국의 독도 영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지속하길 바란다는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공지성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이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제한하

일본의 독도 영토교육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성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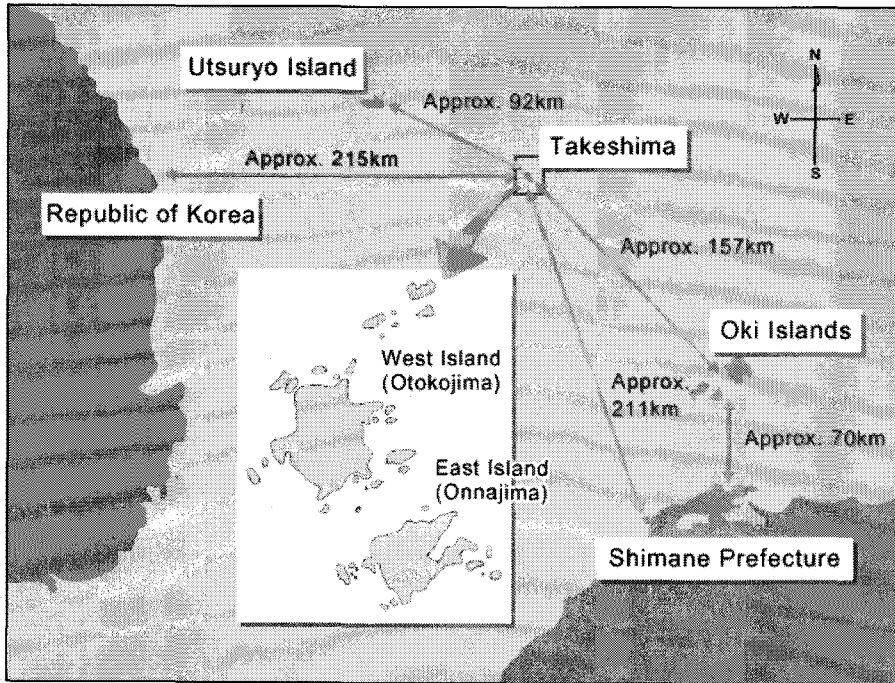


그림 3.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의 위치관계도

【韓国の出入国手続に従った竹島入城の自粛について】
 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が続いている状況の中で、我が国民が韓国の出入国手続に従って竹島に入城することは、当該国民が竹島において韓国側の管轄権に服することを認めたとか、竹島に対する韓国の領有権を認めたというような誤解を与えかねません。そのような入城を行わないよう、国民の皆様の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그림 4. 한국을 통한 독도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외무성의 홍보

는 매우 세세한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무성이 1999년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략에서, 2004년부터 한국의 실효적(實效的) 지배를 '불법 점거'로, 독도에서 한국의 행위를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접근 전략 수정을 보였다. 고유의 영토에 대한 주장보다도 한국측의 불법점거에 대한 일본내의 반응이 더 수용적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한국측의 대응을 촉발시켜 국제이슈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한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하다. 독도를 국제분쟁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08.7.15).

(2) 독도문제와 교육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접근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복과 제도권 교육에서의 영토교육의 공식적 편입은 한일이라는 숙명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 해설서가 적용되는 시기인 2012년 이전인 2009년부터 영토교육을 강화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에 대해 "북방 영토(4개섬)와 마찬가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가능한 한 빨리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국영방송 NHK(2008.7.15)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학습지도요령 설명회를 통해 학교현장에 요청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郎) 문부과학상은 이날 "(해설서가)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적절히 현장에서 판단해 지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법무상도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과 주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본 국민에게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8. 7.16). 여기엔 미래세대에 대한 영토교육의 중요성을 내재시키고, 이슈화하여 독도가 한국령으로 편입되는데 미래세대의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의 유도인 것이다.

일본의 영토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만 접근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 민간기구가 정치적, 외교적, 시민활동적 측면에서도 영토교육의 중요성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활성성을 보장하려는 전략도 아울러 맞물려 있다. 따라서 영토교육의 대상도 대내외 자국과 주변국 및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수평적 차원의 접근과 어린 아동부터 일반국민, 심지어는 한국인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홍보와 교육이 병행하는 수직적 차원의 접근으로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영토교육의 핵심은 북방 4개 섬에 대한 영토교육을 밀도있게 실시하고 있었지만 근자에 독도에 대한 영토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그간 냉랭했던 한일관계의 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애초 문부과학성이 발표하려던 해설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려던 방침이 한국인에 대한 외교적 배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피해 북방영토와 함께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심화시킨다라는 표현으로 비껴나간다(淺野好春, 2008)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으로 계열화하는 접근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국민의 대응은 일본의 어떠한 차원의 독도에 대한 접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의 영토에 대한 위치의 확인과 문제의 영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지리교육 및 역사교육의 접근을 중심으로 교육적 차원을 지속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정치적, 법적으로 기반할 수 있는 외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이 주도적이고 외교 및 홍보, 영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영토교육의 교육과정의 편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홋카이도와 시마네현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교육위원회가 향토교육(후쿠사토교육)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영토교육의 실시와 이에 따른 부교재 개발을 주도하도록 지방자치정부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체계화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2) 신교육과정에서의 독도에 대한 접근

일본은 외무성의 정치문제화와 달리 대국민을 위한 영토교육을 제도권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정치문제를 교육문제화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 내의 지적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들은 한국측의 주장과 일본측의 주장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슈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문교과학성의 주도하에서 제정된 초·중·등 교육과정은 「각 교과 등의 개정안 포인트」(문부과학성, 2008)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에



그림 5. 일본의 교육과정인 신학습지도요령 시행 포스터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신학습지도요령 관련자료, 2009). 이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초·중·고 신학습지도요령을 공표하였다(그림 5). 본래 이 신교육과정의 이념은 학생들의 생활에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힘 즉,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초·기본을 확실하게 몸에 익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스스로 과제를 찾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보다 좋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변지역에서 나라, 나아가 세계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신학습지도요령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취지나 내용의 취지나 조건 정비 등에 노력과 함께 차세대의 일본을 담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의 취지에는 후세대들의 영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신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이전과 달리 국토의 영역과 위치 및 국경의 의미를 비롯한 문제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과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 자국의 고유한 영토를 전제로 한국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학습지도요령에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의 영유권을 대국민 대상 교육적 접근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성을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토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영토교육의 지침을 실은 학습지도요령해설은 학습지도요령의 설명자료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활용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해 또 다른 접근으로 학습지도요령문답(문부과학성, 2008)에는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걸은 일본의 표리부동하지만 내용상으로 질적인 담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영토교육의 전략을 내실화하

고 있다.

이런 일본의 이중적 접근 때문에 영토교육에 대한 대내외적 마찰을 줄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사히(朝日)신문 주간을 지낸 지한파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는 3년 전 독도를 한국의 불법점거로 검정된 것에 비해 180도 전환된 것으로 보고 적어도 과거 지배받은 한국 측의 마음을 이해할 수 출발점도 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교육적 접근은 외교적 접근보다 양국의 주장을 제기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영토교육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독도교육도 북방4개섬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하기 위한 접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와 달리 초·중학 사회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시한 것은 주변국과 갈등을 부르더라도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고, 영토교육을 하려면 초·중등학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차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일면은 없는 듯하면서도 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신교육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명기는 오래 되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하고 일본령으로 표시되어 오히려, 당연 일본 땅인데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정도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은 다양한 차원과 접근방법을 통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1)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지도요령문답집의 독도문제

일본 중학교의 사회에서는 교과목표를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심화' 한다는 목표에서 국토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중시하고 있다.

지리 분야의 목표에서도 일본이나 세계의 지리적 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여, 넓은 시야에서 일본의 국토 및 세계의 여러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고찰해 이해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국토(영토)교

육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내용을 보면, 대단원인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본 및 일본의 여러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여 국토의 인식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단원인 '일본의 지역 구성'에서 다음 내용처럼 국토와 영역의 중요성을 통해서 영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사면이 바다인 섬국가임을 통해 국경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게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당당한 영토문제 혹은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주목시키는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북방영토는 여전히 일본이 중시하는 영토교육의 핵심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 등도 다루도록 하여, 북방영토처럼 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한 학습지도요령문답집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견해로서 영토문제가 생긴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대한 기술을 충실히 시켜 우리나라의 영토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도요령으로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이후 발행 될 다케시마 학습부교재(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 시마네현, 시마네현교육위원회)를 활용토록 하였다. 아동 및 학생들에게 다케시마에 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과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실질적인 학습지도의 표준해설인 학습지도해설서와 그에 대한 문답집을 문부과학성이 직접 작성하여 제시하는 이러한 접근 전략은 표면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자국의 영토교육에 다케시마를 제도교육에 포함 시켜 지속성과 의도성을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인 영토교육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지도요령문답집의 독도문제

일본의 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로 학교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은 초, 중학교에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의 해설에 대한 Q&A에 해당하는 자

료이면서 공식문서인 신학습지도요령문답(문부과학성, 2008)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 5항을 즉, '일본과 향토를 사랑하고...'를 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해설서를 보면 학습지도요령에서 정한 내용은 모두 아동에게 지도하고, 각 초등학교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에 있어서 ".....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금지규정의 일부를 없애 삭제 개정함으로써 유연한 영토교육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문부과학성 초·중학교 총칙 개정포인트, 2008). 이를 통해 문제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독도 및 기타 영역에 대한 영토교육이 법적 제도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히 초등 해설서 62쪽에 초등학교 3학년 및 4학년에게는 47도도부현(都道府縣)의 명칭과 위치를 중시하고 있고, 5학년에게는 세계의 주요 대륙과 해양, 주요국의 명칭과 위치, 일본의 위치와 영토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영토교육의 향토교육과 관련지어 스코프와 시퀀스를 통해 접근하는 전략이다. 장래의 독도의 영토교육은 접근 모형은 바로 이 북방영토교육에서처럼 향토교육을 통해 구체화시켜 가는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정부차원의 독도문제와 교육적 접근

(1) 시마네현 관주도적 접근

시마네현은 독도를 행정적으로 편입하여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県)이다. 다케시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치적, 교육적 접근을 기초하여 지방자치정부가 실행할 수 실천성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이다. 시마네현 정부는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제정하는 조례를 가결한 것을 계기로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동년 6월에 발족시켰다. 이 연구회는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논점을 정리를 중심으로 한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하여 사료, 그림지도, 지도 등을 분석하여 2007년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문제인식 및 정보교환 차원에서 공개적인 현정부의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를 현정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그림 6. 시마네현정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Web 다케시마문제 연구소



그림 7. 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한국어판 팸플릿과 다케시마 자료실

〈그림 6〉, 독도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인식 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소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트와 자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연구자료실을 구비하고 있다(그림 7). 주로 한국어 사이트에는 다케시마가 무엇인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영토 입과 동시에 영토권 확립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은 독도문제연구소를 통해 독도관련 문제에 관한 학술적, 교육적 접근을 통한 일반인에 대한 관심유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계속적인 영유권 주장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일회적 정치적 혹은 교육적 표출보다는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인 접근을 위한 차원이다. 현(縣)정부의 권한에서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독도문제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들은 과감하게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으로도 일본영토라는 시마네현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일본 내의 실질적인 여론 구성자로 조직화하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는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뜻밖에도,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차를 나타냈는데 일본에서 「왜 지금, 조례 제정인가?」라는 당황스러움도 적지 않았던 반응과 관심도의 저하에 비해 한국은 거국적으로 맹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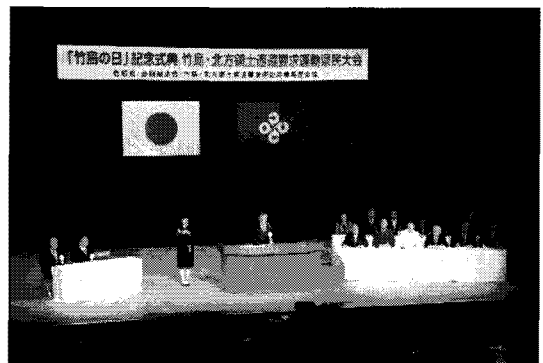


그림 8.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장면 (2010.2.22)

반발한데는 교육의 차이 즉 영토교육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2월 22일에 현주관으로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현민대회」를 개최한다(그림 8). 이들은 독도문제의 별개의 영토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일본국민 대부분이 북방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확신하고 있는 점을 독도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민과 일본 대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한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국민에 대한 홍보와 영토교육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전개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 독도관련 교과서에 대한 접근

교과서는 학생이 학습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일본의 학교교육에서는, 각 학교가 편성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정하고, 교과서는 이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교과·과목 등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의 창의에 따라 적절한 교재를 활용하면서 학습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교과서는 우리나라처럼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의 구현체이다.

이러한 교과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마네현은 2007년과 2008년에 각 교과서회사 앞으로 지사명의로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보냈다. 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공민, 지리 각 1冊, 고등학교에서 현대 사회, 일본사, 지리, 정치 경제의 합계 8冊 11개 교과서에 지나지 않았고,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는 기술자체가 아예 없었다. 거기에 내용의 질, 양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한글교과서의 분석에서 일본의 교과서는 중학 지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교섭해, 다케시마 주변의 수역을 우선 양국에서 공동 관리 하는 잠정 어업수역으로 했다」는 정도로 해양관련 현상의 기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학교 경우, 국정교과서인

국사에서 1쪽을 할애해 「일본은 노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다」라고 기술하고, 게다가 검정교과서인 고등학교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은)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해, 자국 영토와 같이 왜곡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비교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도덕이나 국어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마네현은 2004년, 국가에 「다케시마 문제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학습 지도요령으로 채택하면 좋겠다」라고 요망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이 마침내 2006년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의 교과서에서는, 공민 3冊, 지리 2冊가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과의 「교육의 비준」에서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고,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인 「대화」를 거듭하려면, 자국의 주장이나 지리와 역사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영토교육의 중요성으로 보았다. 일본은 영토교육의 차원이 자국의 독자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보다 한국의 교과서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방 교육위원회의 독도문제 접근

가)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의 독도문제 접근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를 배우는 수업, 시마네현의 전공립초중등학교에서 본격화로」라는 제목하에 2009년 부터 시마네현의 모든 공립초중등학교에서 본격화한다는 기사를 실었다(아사히신문, 2009. 3.15). 이는 현(縣)교육위원회가 제작한 교사용 안내서와 부교재를 제작 배포, 중학교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처음으로 다케시마를 명기한 수업용 교재가 된 것이고 이것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다케시마를 정면으로 다루는 첫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독도를 시마네현의 향토교육인 「후루사토 교육」에 편입하여 애항심과 영토의식을 결합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그림 9).

이 부교재에는 초등학교 5학년은 「국토와 환경」단원에서 1차시 수업분량으로 「왜 지금, 다케시마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나요」라는 수업주제를 설정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DVD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이의



그림 9. 부교재 후루사토오키의 독도관련 내용 일부

수업목표는 다케시마의 이름, 위치, 어업을 통해서 다케시마와 시마네현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어 중학교 1학년은 「일본의 지역구성」이라는 단원에서 2차시 수업 분량으로 다케시마 주변의 어업문제,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일 대립 등을 배우고, 교사가 「지금부터 다케시마 문제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호이해를 심하시켜 가도록 되어 있다(아사히신문, 2009.3.15). 이 수업목표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문제의 역사, 영토문제의 실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현교육위원회는 그간 독도에 관한 안내서나 교재가 없어서 독도관련 영토교육 수업에서 영유권 문제를 구두로나 다케시마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는 정도였다. 시마네현은 교육위원회(2009. 2.23일 개최)에서 「다케시마에 관한 부교재를 사용한 학습에 대해서」라는 의무교육과의 '의제 제 87호'에 대해 중학교에서 사용할 다케시마에 대한 부교재를 작성중이라고 밝히고,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 시마네현총무부총무과, 시마네현교육위원회의의 3자가 주도하여 2008년 7월부터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부교재의 작성에는 현직교사 1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그간 8차례 모임을 가져왔다.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지도안의 예시, 영상자료(DVD), 워크시트 부분으로 되어있다. 다케시마 지도내용을 연간지도계획에 포함시켜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업에 대한 근거로 신학습지도요령의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다루고,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의 영토,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술 내용에 덧붙여 시마네현교육위원회에서 부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하도록 통지하였다. 하지만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해도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마네현 의무교육과장은 다케시마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부탁해 왔지만, 이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제대로 된 형태로 통지해 철저히 하고 싶다는 심증을 내비쳤다. 의지는 바로 시마네현 교육당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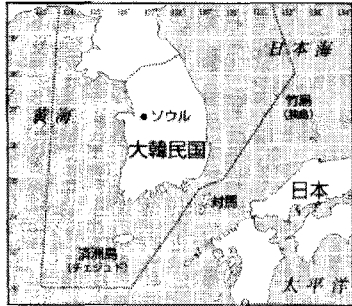
나) 오키노시마초 교육위원회 독도문제 접근 시마네현의 한 행정구역이면서 독도가 편입된 실질적인 행정적 단위인 오키노시마초(隠岐の島町)이다. 일찍부터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후루사토(ふるさと)교육」 통해서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전통 행사, 산업이라고 하는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교·가정·지역이 일체가 되어서, 교향에 대한 자긍심이 풍부하고 씩씩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애 및 사회교육학습 차원이다. 이 교육은 공교롭게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2005년부터 현내 전 초·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중점시책이다. 이 후루사토교육은 다케시마 관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 교육위원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보고, 일본인으로서의 그리고 시마네현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는 의미에서라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길 요망하고 있다. 오키노시마초 교육위원회에서는 후루사토교육 부교재 「후루사토 오키」로서 다케시마에 관련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부교재에서 약 9페이지 분량이 독도에 관한 내용 제시되어 있다(그림 10).

이처럼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면서도 지방자치정부의 역할과 내용이 서로 다른 접근과 차원을 가

(3) 竹島をめぐる領土問題

1941(昭和16)年に太平洋戦争が始まると、竹島での漁はできなくなりました。1945(昭和20)年の終戦により、朝鮮半島など日本のすべての植民地は返され、日本の領土は、北海道、本州、四国、九州と周りの島々に限られましたが、どの島が日本の領土かがはっきりしない島がありました。その一つが竹島です。しかし、1951(昭和26)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できる過程で、竹島は日本の領土に含まれるとされました。

ところが、1952(昭和27)年1月18日、韓国の李承晩(りしょうばん)大統領は、「李承晩ライン」を引いて竹島を韓国に取り込み、実力支配を始めま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有効となる3か月前のことでした。日本は抗議するとともに、竹島へ調査船を出して日本領土の標柱を建てました。メンバーの一人で久見の八橋才太郎さんは、竹島が1905(明治38)年に日本に編入されてから「当時(石橋さんたちが)約10年間事業を続けていましたが、何国からも抗議や干渉を受けた事実はありません」と証言し、さらに視察の様子を書き残しています。(史料⑥)



地図④ 李承晩ライン



写真⑧ 日本領土の標柱(1953年)



写真⑨ 「島風」での竹島視察(右から2番目が八橋さん)

그림 10. 오키노시마초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 후루사토교육 부교재 중 독도관련 페이지

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름의 깊이와 체계성을 갖추고 있게 보인다. 일본은 이미 북방영토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 특히 교육적 접근에서도 독도문제를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얻고자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정서적, 감정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일회성의 교육과 내용만으로 한국의 영토교육은 일본을 앞서 보이지만, 일본의 지속적이고, 논리적 접근과 전략에 대해서 향후 어떤 결과가 예측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접근과 전략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우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계속 요하고 있다.

3. 결론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방자치정부는 실효적인 내용과 실천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은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단일한 감정과 민족주의에 의존하는 단일 접근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북방영토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 특히 교육과 독도문제의 접근 방향을 같은 맥락에서 연계하여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얻고자하는 전략이 함께 하지만,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성은 한일 양국의 상황적 맥락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구성 요소의 변화와 그 구성 요소의 재배치에 의한다. 그에 따른 현안의 인식과 설정, 그에 대응전략에 따른 요소들의 다차원적 배치라는 점과 이에 따른 양국의 접근 전략은 가변적이고, 잠재적이면서 현재의 일시적 응결상

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감정적 차원과 민족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독도, 한반도, 동아시아, 아니 세계의 맥락에서 이웃들의 배치를 달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사건(event)과 의미를 담아내는 질적 교육적 접근을 함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정서적, 감정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일회성의 교육적 효과가 일본보다 큰 촉발장치를 갖고 있지만, 일본의 지속적이고, 논리적 접근과 전략에 대해서, 향후 독도를 둘러싼 조건들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영토 교육적 맥락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일본정부의 목소리와 달리 일본 내 홋카이도 교조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장소를 이용해 나라의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자민당 정부의 방식은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민주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운동을 진행시켜 갈 생각”이라고 밝힌(오마이뉴스, 2009.12.28) 일본 내의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와 영토교육의 연대를 모색하는 한일양국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개정교과서가 아직 다 출판되지 않고 새학습지도요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좀 더 교육적 파급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외무성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이런 접근성의 분석을 통해서 독도문제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독도문제를 주로 역사적 시각에서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학교교육에서 영토교육관련 내용을 보면, 지리, 역사, 사회, 공민과에서 공간적, 시간적, 수산업 경제와 국제법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과 기반에서 다면적으로 다루려고 시도한다. 둘째, 중학교는 사회과에서는 영토교육 관련 내용이 중학교 과정의 ‘일본의 지

역구성(일본의 위치 영역 등)’과 고등학교 과정(지리B)에서는 ‘현대세계의 제 문제에 대한 지리적 고찰’이 연관성을 가진 대표적인 단원이다. 셋째,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는 독도에 대해 일본에 불리한 역사적 접근보다는 영토와 주권문제로 전환, 한국의 불법점거로 규정하면서 영토를 둘러싼 대립, 갈등의 대상으로 보도록 국제법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접근이다. 넷째, 일본 정부는 범부성, 외무성, 문교과학성이 독자성을 유지하되, 개별적이기 보다는 외교적, 법률적, 교육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토교육을 체계화 시켜가고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은 점진적 강화되고, 시마네현이 독도 영토교육을 행정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관민단체가 이에 조직적으로 부응하면서, 현재의 해결보다는 차세대에 대한 영토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려는 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 끝으로 관주도적 홈페이지 접근을 통해 독도 관련 정보를 아카이브하고, 관련 링크를 체계화시켜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정보와 주장을 체계화 시켜 가고 있다.

문헌

- 규장각, 2007,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민족과 영토 성 다시 읽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경동, 2008, 한국과 이스라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원, 2008,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기술’과 일본 내 반응,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박물관, 2002, 잊혀진 ‘朝鮮海峽’와 ‘朝鮮海峽’, 연구자료총서 II.
- 서태열, 김혜숙, 윤옥경, 2007,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11.
- 서태열·김혜숙·윤옥경, 2007,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방순, 2008, 해외 학계와 미디어를 통한 교육 강화 및 네트워크 방안, 독도연구저널 4, 49~55.
- 이재석, 2008,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과 소위 ‘죽도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서태열, 박철웅 외, 2009, 동해 및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117-140.
- 홍성근, 2008, 일본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 文部科學省, 2008, 各教科等の改正案ポイント.
- 文部科學省, 2008, 高等學校 學習指導要領 新舊對照表.
- 文部科學省, 2008, 小學校・中學校學習指導要領 總則に関する Q&A.
- 文部科學省, 2008,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篇.
- 文部科學省, 2008,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篇.
- 文部科學省, 200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篇.
- 福澤諭吉, 1989, 福澤諭吉選集, 岩波書店. 30.
- 常角 敏, 2008, 小・中學生のにこう教えています竹島問題, 第3回 「竹島問題を学ぶ」 講座.
- 島根県, 2007,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所.
- 伊藤博敏, 2008, 学校教育と竹島問題, 第3回 「竹島問題を学ぶ」 講座.
- 淺田喬二, 1985, 日本智識人の植民地認識, 高麗書林, 서울.
- 淺野好春, 2008, 李明博政権下で 再燃した竹島問題, 読売クォーター秋号, p.20.
- Andre Schmid,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Studies of the East Asian Institute.
- 일본시마네현 <http://www.pref.shimane.lg.jp/>
- 일본시마네현 웹다케시마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 일본시마네현교육위원회 <http://www.pref.shimane.lg.jp/kyoikuiinkai/>
-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region/index.html>
- 일본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index.htm

(접수: 2010.4.26, 수정: 2010.5.14, 채택: 2010.6.9)